

발표 시점 : 2014년 8월 29일 (금)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조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4년 8월 31일 일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현대경제연구원은“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김 천 구 선임 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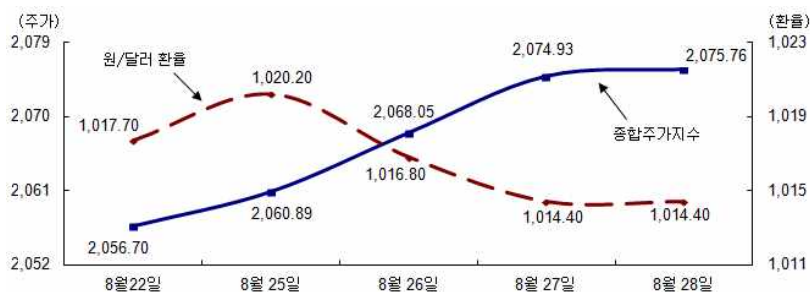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22~8.28)

Better than  
the Best!



##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천 구 선임 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 개요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상황지수와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국내 통화정책 방향과 적정금리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국내의 통화정책 방향을 통화상황지수로 살펴보았다. 통화상황지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통화정책은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이다. 국내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며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방향에서 점차 긴축적으로 움직여 오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통화정책이 가장 긴축적이다. 주요국의 통화상황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영향으로 2012년부터 통화정책이 급진적인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유로존은 통화정책이 기존의 긴축적인 흐름에서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며 완화적인 흐름으로 바뀐 이후 최근 점차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기준금리의 적정 수준을 테일러준칙으로 추정하였다. 테일러준칙으로 추정한 적정금리는 2014년 2/4분기 기준 1%대 후반으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2.25%보다 낮았다.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기준금리, 적정금리는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였다. 기준금리는 2000년대 중반(2005~2007년)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경제의 높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기준금리는 3%대를 유지하였다. 최근에 저물가 현상과 실질 GDP가 잠재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적정금리 수준이 크게 하락하였다.

#### ■ 시사점

첫째,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갭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물가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셋째, 국내 통화상황이 주요국 대비 긴축적이므로 정책 방향을 당분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정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추정되므로 현재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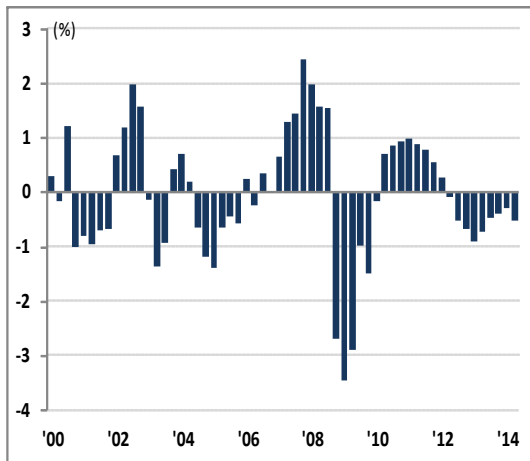
-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 장기화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기 상황에 맞는 적정 금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국내 경제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내수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민간소비는 취업자 수의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여파, 소비심리 회복 지연,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제조업의 수익성 정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 미약
    - 하반기에도 외수 경기의 완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는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 최근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 통화정책이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등을 이용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에 변화를 주어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
    - 즉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 시장금리 인하 → 소비, 투자 증가(확장적 통화정책) → 경기부양 또는 금융시장 안정'의 금리중심 통화관리 메커니즘을 일컫음
- **본 보고서에서는 통화상황지수와 테일러준칙을 이용하여 국내 통화정책 방향과 적정금리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판단하는 지표로 통화상황지수와 테일러준칙이 일반적으로 사용
    - 캐나다 중앙은행이 개발한 통화상황지수는 중앙은행의 현재 통화정책이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 여부를 단기 실질 이자율과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하여 판단
    - 테일러준칙은 미국의 경제학자 John Taylor가 개발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의 단기이자율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적정금리를 산출

## 2. 국내 경제 현황

○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낮은 상황

- 국내 경제는 GDP갭률<sup>1)</sup>이 2012년부터 실질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디플레이션갭에 진입
  - 디플레이션갭이란 실질GDP가 잠재GDP<sup>2)</sup>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가 디플레이션갭 상태일 경우 물가는 하락압력이 높음
  - GDP갭률은 2012년 2/4분기부터 디플레이션갭에 진입하였으며 2013년 3/4분기와 4/4분기 각각 -0.46%, -0.39% 2014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0.28%, -0.51%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갭을 보이고 있음
-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세월호 충격이 겹치면서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 민간소비 증가율(전기비)이 2013년 3/4분기 1.0%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 2/4분기 -0.3%로 마이너스 성장
  - 설비투자는 2012년 2/4분기 -8.0%에서 2013년 4/4분기 5.6%로 개선세가 이어지다가 2014년 1/4분기 -1.9%, 2/4분기 1.3% 성장으로 부진세가 지속

< GDP갭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 국내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1) GDP갭률=(실질GDP-잠재GDP)/잠재GDP, GDP갭률에서 사용된 잠재GDP는 시계열적 접근법인 H-P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정.

2) 잠재GDP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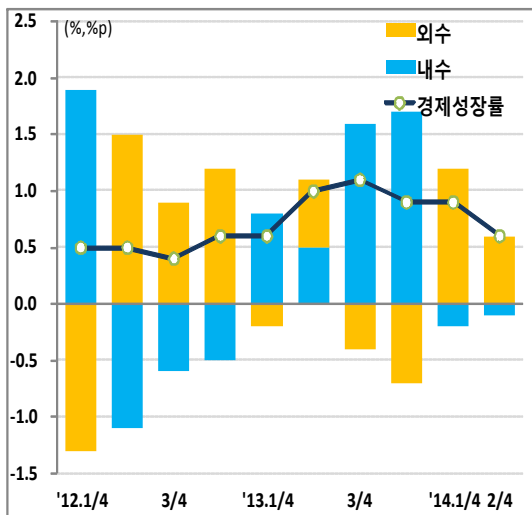
- 순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기준으로 2013년 3/4분기 이후 서서히 성장폭이 감소하고 있음

- 외수의 성장기여도는 2014년 1/4, 2/4분기에 각각 1.2%p, 0.6%p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
-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14년 1/4, 2/4분기에 각각 -0.2%p, -0.1%p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순수출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하며 전기대비 실질GDP 증가율은 1/4분기 0.9%에서 2/4분기 0.6%로 부진한 양상

-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저물가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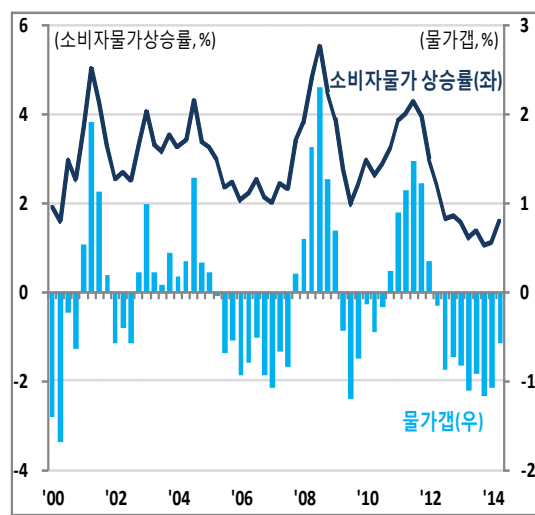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가 2012년 11월(1.6%)부터 올해 7월(1.6%)까지 21개월 연속 2% 대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대 최장 기록
-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물가 목표하한<sup>3)</sup> 역시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1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음
- 물가갭<sup>4)</sup> 역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있음

< 내수, 외수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기대비.

< 국내 소비자물가와 물가갭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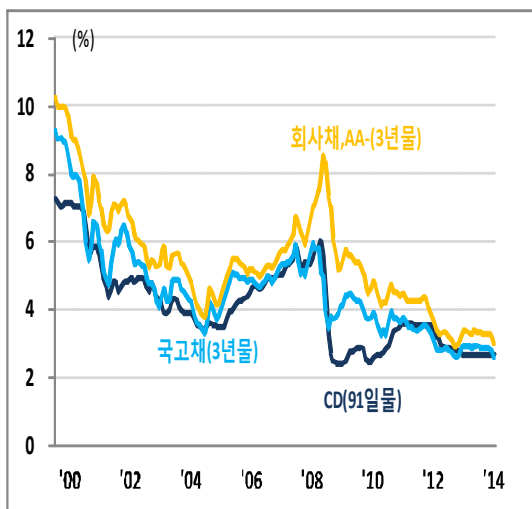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3) 정부의 물가목표치는 2010~2012년 3.0±1%, 2013~2015년 2.5~3.5%임.

4) 물가갭=소비자물가상승률-물가의 장기추세치.

-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등 주요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금융위기 기간에 6%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서서히 채권 시장이 안정되며 2014년 7월 기준으로 2.56% 까지 낮아짐
  - 회사채 AA- 3년물 금리는 201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7월 기준으로 2.97% 까지 낮아짐
  - 향후에도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 금리 상승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은 국내 경제 기초 여건과 외환 수급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원화 강세 흐름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2014년 1월 1,100원대에서 8월 현재 1,010원대로 절상
  - 원/100엔 환율은 2013년 평균 1,124.3원에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1,021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10.1% 절상
  - 한국 경제의 경제 기초 여건, 외환 수급, 국제 금융시장 요인을 고려할 때 원화 강세 압력은 과거보다 높아 당분간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임

< 국내 주요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원/달러, 원/100엔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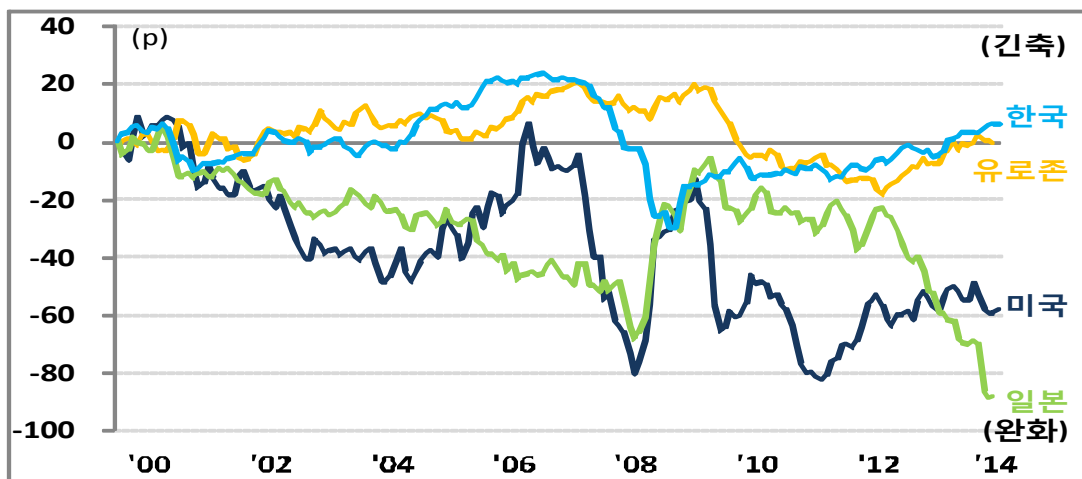


### 3.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 현재 국내통화상황지수는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이며 주요국 대비하여서도 상당히 긴축적인 편

- 통화상황지수(Monetary Condition Index: MCI)로 현재 국내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인지 완화적인지 여부를 살펴봄
  - 통화상황지수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지수로 통화정책이 금리와 환율 경로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든 지수임
  - 통화상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면 금융완화, 상승추세를 보이면 금융긴축 기조인 것으로 판단
  - 어느 한 시점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이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두 시점간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적인 금융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
- 통화상황지수를 추정해본 결과 현재 국내의 통화상황지수는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
  - 현재 국내의 통화상황지수<sup>5)</sup>는 약 6.2 수준으로 2007년 이후 가장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및 주요국 통화상황지수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 : 2000년 1월 기준.

5) 기준시점은 2000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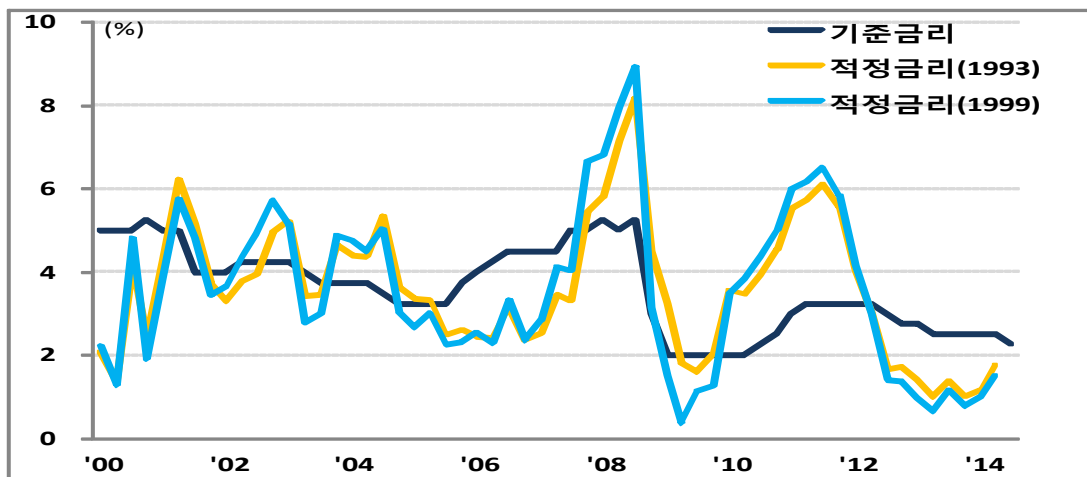
- 통화상황지수로 본 국내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방향에서 점차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오고 있음
  - 200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통화상황지수를 추정해 본 결과 2000년대 초반 통화정책은 중립적이었음
  - 국내 통화정책은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음
  - 2008년 금융위기 발생으로 금리 인하 및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평가절상 등이 이루어지며 통화상황지수가 완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음
  
-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한국은 통화정책이 가장 긴축적임
  -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이 급격하게 완화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이후 현재까지 유지
  -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통화정책이 급진적인 완화 정책으로 선회
  - 유로존은 통화정책이 기존의 긴축적인 흐름에서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며 완화적인 흐름으로 바뀐 이후 최근 점차 긴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현재 기준금리는 실물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 테일러준칙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여 실제 기준금리 수준과 비교 및 현재 통화정책 평가
  - 테일러준칙이란 실물경기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여 현재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방식
  - 테일러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회)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물가 상승률을 상회(하회)하면 기준금리를 인상(인하)하여 경기를 조절
  - 테일러준칙은 경기와 물가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3년)<sup>6)</sup>과 실물경기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9년)<sup>7)</sup> 방식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산출

6) Taylor, John B. (1993), "Discretion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Carnegie 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39, 195-14.

7) Taylor, John B. (1999), "An Historical Analysis of Monetary Policy Rules,"in Monetary Policy Rul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19-348.

- 현재 적정금리 수준은 2014년 2/4분기 기준 1%대 후반으로 해석됨
  - 경기와 물가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3년)의 경우 적정금리 수준은 2014년 2/4분기 1.76%로 기준금리 수준인 2.25%보다 약 0.49%p 낮음<sup>8)</sup>
  - 추가적으로 경기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테일러준칙(1999년)을 추정할 결과 적정금리는 테일러준칙(1993년) 보다 낮았음
-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제 기준금리와 적정금리가 비교적 유사하게 움직여 왔으나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적정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에는 적정금리와 기준금리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실제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
  -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높은 물가상승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기준금리는 3%대를 유지
  - 최근에 저물가 현상과 실질GDP가 잠재GDP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며 적정금리 수준이 크게 하락
- 현재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 실물경기 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에 비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높은 수준
  - 다만 테일러준칙에 의한 적정금리가 금리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최근 디플레이션갭 및 물가갭 마이너스 축소 등으로 적정금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8) 목표물가상승률을 정부의 물가목표치 중간값(3.0%), 물가목표치 하단(2.5%), 물가 장기평균값(2.7%) 등으로 변경하여 적정금리를 계산한 결과 2014년 2/4분기 적정금리는 1.22~1.76% 사이의 값을 가짐.

#### 4. 시사점

-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궤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함은 물론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도 주력
    -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 **물가값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유의**
    - 중앙은행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리 못지않게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
  - **국내 통화상황이 주요국 대비 긴축적이므로 정책 방향을 당분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주요 정보변수로서 금리, 환율 등 핵심요소와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
  - **적정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게 추정되므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
    -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중앙은행은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
    - 기준금리에서 단기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로 이어지는 금리 파급경로의 효과 증대 방안 마련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1 > 통화상황지수

- 통화상황지수(Monetary Condition Index: MCI)란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지수로 통화정책이 금리와 환율 경로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든 지수임
  - 금리경로란 금리의 변동이 민간의 저축 및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환율경로는 금리의 변동이 환율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교역재 및 서비스, 그리고 수입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통화상황지수는 기준시점으로부터의 금리변동과 환율변동에 각각 일정한 가중치를 곱한 다음 더하여 구함
  - $i_t, i_0$ 와  $e_t, e_0$  는 각각 t시점과 기준시점의 실질금리와 실질실효환율,  $\alpha$ 는 금리가중치,  $\beta$ 는 환율가중치임
  - 환율과 금리의 가중치는 기존연구에서 국내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alpha=2, \beta=1$ 을 가중치로 사용<sup>9)10)</sup>
  - 통화상황지수의 기준시점은 임의로 편리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경상수지 균형 등 일정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는 없음

< 통화상황지수 추정식 >

$$\begin{array}{lcl}
 MCI_t & = & \alpha(i_t - i_0) + \beta(\log(e_t) - \log(e_0)) \times 100 \\
 \text{(통화상황지수)} & & \text{(금리경로)} \quad \quad \quad \text{(환율경로)}
 \end{array}$$

- 통화상황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면 금융완화, 상승추세를 보이면 금융긴축 기조인 것으로 판단
  - 어느 한 시점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이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두 시점간의 통화상황지수 수준을 비교해 봄으로써 상대적인 금융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

9) 고강석(1998), “우리나라의 통화상황지수 개발과 시사점,” 韓國銀行 경제분석, 제4권 제1호, 3월, pp. 109-149.

10) IMF, 유럽연합 등은 통화상황지수의 가중치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부문의 비중을 고려하여 미국은 10:1, 영국 3:1, 일본 3:1, 유로존은 6:1, 캐나다 3:1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

< 부록-2 > 테일러준칙

- 테일러준칙이란 미국 경제학자 John. Taylor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반응함수로 실물경기상황과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여 현재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
- 테일러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거나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상회하면 기준금리를 올려 지나친 경기 과열을 방지
  - 이에 반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보다 내려가면 기준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진작 시킴
- 테일러준칙에 의한 적정금리( $i_t$ )는 경기 변화와 물가변화에 적절한 가중치를 주어 산출
  - 경기변화는 실질GDP( $Y$ )와 잠재GDP( $Y^*$ ) 차이인 GDP갭 물가 변화는 소비자상승률( $\pi_t$ )과 목표물가상승률( $\pi_t^*$ ) 차이인 물가갭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r_t$ 는 실질 균형금리  $\alpha$ 와  $\beta$ 는 각각 경기와 물가 변화의 가중치를 의미
  - 경기와 물가에 동일한 가중치( $\alpha, \beta=0.5$ )를 주는 테일러준칙(1993년<sup>11)</sup>과 실물경기에 좀 더 가중치( $\alpha=1.0, \beta=0.5$ )를 주는 테일러준칙(1999년<sup>12)</sup> 방식이 있음
  - 물가갭 산출시 사용되는 목표물가상승률은 기본적으로 H-P필터링을 이용한 장기추세치를 이용

< 테일러 준칙 추정식 >

$$i_t = r_t + \pi_t + \alpha(100(Y - Y^*)/Y^*) + \beta(\pi_t - \pi_t^*)$$

(적정금리)                      (균형 명목기준금리)                      (GDP갭률)                      (물가갭)

11) Taylor, John B. (1993), "Discretion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Carnegie 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39, 195-14.

12) Taylor, John B. (1999), "An Historical Analysis of Monetary Policy Rules,"in Monetary Policy Rul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19-348.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8월 21일	8월 28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41	2.34	-0.07%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3.9	103.7	-0.2¥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281	1.3182	-0.0099\$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7,040	17,080	40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5,586	15,460	-12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58	2.53	-0.05%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23.6	1,014.4	-9.2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44.2	2,075.8	31.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8월 21일	8월 28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5.22	94.61	-0.61\$
	Dubai	107.99	100.38	107.88	100.30	100.68	0.38\$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89.74	292.03	2.29\$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6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5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6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5.4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7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455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5,836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4.3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381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4.4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1.7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6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3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